

깨끗한 세탁법

봄날의 빨래를 좋아하세요?

두툼한 겨울옷과 이불은 깨끗이 빨아 옷장에 정리하고, 봄철 황사로 오염된 외출복은 꼼꼼히 신경 써 세탁해야 할 시기다. 세탁기가 '알아서' 세탁해주면 좋겠지만, 안전한 세제를 고르고 옷감별 세탁법을 분류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다. 그래서 알아봤다. 알아두면 유용한 빨래 상식의 모든 것.

글_박하나 기자<매거진 이하우징>



깨끗한 세탁을 위해 이것만은 꼭!

① 흰색과 색깔 옷은 분류해 세탁하기

② 수건은 단독 세탁하고 젖은 수건은 말린 후 빨래 바구니에 넣을 것

③ 미지근한 물 온도 맞추기

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 온도다. 물이 너무 차가우면 때가 빠지지 않고, 너무 뜨거우면 옷 모양이 변형되거나 탈색될 위험이 있다. 대략 38~40℃ 정도가 알맞다.

④ 빨래는 세탁기 용량의 70%까지만

⑤ 세제와 세탁물은 따로 넣을 것


가루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, 물에 개어 녹인 후 세탁기에 투입하거나 세탁기에 먼저 물을 받고 세제와 표백제를 넣어 1분 정도 돌린 다음 세탁물을 넣자.

⑥ 지퍼는 채우고 단추는 풀 것


다른 세탁물이 상하지 않도록 지퍼는 꼭 잠그고, 셔츠나 블라우스와 같이 얇은 소재의 옷은 단추를 풀고 세탁해야 단추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.

헛갈리기 쉬운 옷감별 세탁 방법 O X


다운재킷은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한다?

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보온성이 떨어지므로 중성 세제를 사용해 미지근한 물에서 손빨래하는 것이 좋다. 손빨래는 15분 이내가 적당하며, 안감을 뒤집어 빨면 더 잘 헹구인다.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, 울 코스로 돌려줘야 강한 탈수로 인한 훼손 및 충전재가 뭉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탈수가 끝나면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며 손으로 털어 충전재가 골고루 분포되게 한 뒤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넓게 펴 말린다. 이때 옷걸이에 걸어 말리면 충전재가 아래로 쳐질 수 있으니 피할 것.


구스 이불은 물세탁이 가능하다?

 거위와 오리는 물가에 사는 동물로, 거위털과 오리털 소재의 이불 역시 물세탁이 가능하다. 부피가 큰 만큼 셀프 빨래방의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다. 반드시 냉수 코스를 이용하고, 건조기를 이용할 때 깨끗한 테니스공을 함께 넣으면 털이 뭉치지 않고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있다. 잦은 세탁은 수명을 단축시키니, 평상시엔 햇볕에 널어 소독하고 세탁은 1년에 한 번 정도가 알맞다.


색깔 있는 옷을 건조기에 돌려도 상관없다?

 옷을 뒤집어 찬물에 세탁하되, 건조기 열기로 색이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조기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. 색깔 옷을 흰 면소재 천에 싸고 따뜻한 물에 적셔 비눗물로 비볐을 때 색이 묻어나오면 탈색 위험이 있으니 따로 찬물에 중성세제를 약간 넣어 개별 손세탁한다. 그리고 빨강, 검정과 같은 진한색을 띤 옷은 소금을 풀어 넣은 물에 10~30분가량 담근 뒤 찬물로 세탁하면 색이 빠지는 것을 억제해 선명한 색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.

속옷은 손빨래를 권장한다?

 예민한 소재인 실크나 레이스가 포함된 속옷은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원단 손상을 막는다. 화려한 프린트의 속옷 역시 표백성분이 있는 세제를 사용하면 얼룩이 질 수 있다. 기본적으로 손세탁을 권장하며, 세탁기에 넣을 경우 세탁망을 이용하되 브래지어는 2~3개 정도가 적당하다.

수영복 또는 래시가드는 온수에 세탁한다?

 스판덱스나 엘라스틴 재질의 옷은 차가운 물에 담가 손으로 빨아주는 것이 올바른 세탁법이다. 아무리 세탁망에 넣어 울 코스로 돌려도 손상되는 사실은 변함없다. 바닷물이나 수영장 소독약 냄새가 심하다면, 찬물에 식초 한 스푼을 풀어 담근 후 잘 행군다. 헬스복이나 요가복과 같은 운동복은 찬물에 중성세제를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 세탁해야 수명이 길어진다.

TIP

옷에 묻은 얼룩 고민, 깔끔하게 지우자!

+ 김치 국물, 커피 깨끗한 천에 더운물을 적서 얼룩진 곳을 닦아낸 후 탄산수를 묻혀 두드리듯 닦아낸 다음 비눗물로 세탁한다.

+ 와인, 주스 식물성 색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세제를 만나면 얼룩이 더 진해진다. 식초에 약간의 주방 세제를 섞어 얼룩진 부분에 바른 후 미지근한 물에 행구면 얼룩이 얼어지며, 이후 일반 세제를 넣고 빨래한다.

+ 삼겹살 기름 기름얼룩은 레몬이나 식초로 응급처치를 하면 세탁이 편하다. 이후 소독용 알코올을 이용해 얼룩을 지우고 세탁한다.

+ 볼펜, 매직 소독용 알코올과 주방세제를 10:1 비율로 섞어 얼룩에 바르면 잘 지워진다.

+ 땀 겨드랑이 밑이나 목 테두리 부분의 땀 얼룩은 소독용 에탄올을 발라 닦은 뒤 건조시켜 얼룩의 번짐을 막는다.